



[라이프] 쉬위진 김장 '편리미엄'으로 김포쪽 잡는다 L1



Life

[바이오] 대웅제약 당뇨신약 가속 임상3상 승인 L2



#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효율화... 대유행 위기상황 대비한다

확진자 수 따라 운영 제고 방안 수립 환자 감소 시 경기도 센터 운영 중단 환자 폭증 시 센터 확충 방안 마련 대유행엔 3주 이상 대응 병상 확보

서울시가 근래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유행 상황에 대응하고자 생활치료센터 운영 효율화에 나선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9월 14일 생활치료센터 8곳을 개소해 운영 중이다. 시는 ▲남산유스호텔(소재지: 중구 퇴계로) ▲태릉선수촌(노원 화랑로) ▲한전인재개발원(노원 노원로) ▲서울소방학교(은평 통일로) ▲국립국제교육원(경기 성남) ▲KOICA연수원(경기 성남) ▲삼성물산국제경영연구원(경기 용인) ▲SK아카데미(경기 용인)를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했으며, 병상수는 1625개에 이른다.



노원구 태릉선수촌. /서울시

여기에 예비용으로 확보한 새마을중앙연수원(330병상), 교회 수련원 3곳(1000병상)을 더하면 전체 병상 수는 2955개에 달한다.

이에 시는 확진자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환자가 줄어들면 경기도에 있는 생활치료센터부터 운영을 중단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관내 한전인재개발원, 서울소방학교2곳과 경기 소재 국립국제교육원 내 센터 문을 닫은 바 있다. 이는 9월 이후 확진자가 감소했고 추석·개천절·한글날 연휴가 끝나고 감염병 추이가 진정됐기 때문이라고 시

는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병상가동률은 지난 8월 30일 60.7%에서 10월 15일 4.9%로 떨어졌다.

다만 확진자가 감소해도 서울 남산·태릉센터는 지속 운영된다. 다른 시설도 재유행을 대비해 즉시 가동이 가능하도록 운영 종료 시에도 시설과 장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의료진과 행정지원 인력만 철수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확충 방안도 마련했다. 그동안은 하루 200명 미만으로 환자가 나와 현 방역체계 하에서 통제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일 250~4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대유행적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최근 소규모 모임, 다중 이용시설 등 다양한 경로로 지역감염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36~44주는 감염재생산수(Reproduction number)가 1 이하였으나 43주를

기점으로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강력한 방역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재생산수는 40주 0.84, 41주 0.77, 42주 0.77에서 43주 0.81로 오르더니 44주(10월 24~30일)에는 0.91을 기록, 다시 1에 가까워지고 있다.

우선 시는 생활치료센터 시설 및 의료지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의료자원을 총동원해 3주 이상 대응 가능한 병상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의료자원(대형병원, 호텔시설) 불균형 문제는 자치구간 공동대응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인접 2~3개 자치구 확진자를 수용하는 센터를 함께 설치해 운영토록 하는 방식이다.

시는 "하루 2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약 23일 대응이 가능하나 250명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되는 위기상황 때는 자치구를 포함,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서울시, '집단감염 원인' 불법다단계 5곳 적발

다단계 관계자 10명 입건·수사 "감염 확산 주요 원인... 강력 대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 5곳을 적발해 대표 등 관계자 10명을 입건·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후원 방문판매 등록만 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방문판매 신고만 하고 화장품 판매 ▲방문판매 신고만 하고 농산물가공식품 판매 ▲통신판매 신고만 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거래 없이 금전거래 행위를 해왔다. 이런 미등록 다단계 영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행위다.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사람들을 모아 놓고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 업체 1곳을 적발한 후 관할 경찰서에 이첩해 수사토록 한 바 있다.

시는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 다단계업체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

라고 경고했다.

다단계판매나 방문판매는 업종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모이므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거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고, 회원 중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이 많아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에서 관악구 리치웨이(210명), 무한그룹(85명), 강남구 대우디오빌플러스(58명)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며, 광주에서는 한방문판매 모임과 관련해 150명이 확진됐다.

다단계업체의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사업자 등록현황→다단계판매사업자→등록 여부 메뉴를 차례로 찾아 검색하면 알 수 있다. /김현정 기자

# 파주시, 통일신라 축조 외성문터·성벽 발굴

덕진산성 발굴조사 통해 역사 드러나 유적 기본계획 수립해 가치 높일 것

파주시와 중부고고학연구소는 파주 덕진산성(사적 제537호) 발굴조사를 통해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외성문터(외성문이 있었던 자리)와 성벽을 처음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임진강 변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덕진산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성은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 발굴조사 결과, 일찍이 고구려가 처음 성을 쌓은 이후 통일신라시대에 대대적으로 보수해 사용했으며, 조선시대까지 오랜 기간 주요 성곽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음이 밝혀졌다.

외성문의 형태는 개거식(開掘式, 성벽 상부가 개방된 성문)으로 확인됐으며 제일 아래층에서 통일신라시대 기와편이, 그 윗층에서는 통일신라~조선시대 유물들이 출토됐다. 외성문과 연결된 외성벽은 최소 4차례 고쳐 쌓은 것으



파주 덕진산성 조사지역 전경. /파주시

로 확인됐으며, 여기에서도 통일신라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덕진산성은 우리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역사적 현장으로 파주시는 덕진산성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왔다"라며 "2021년에는 유적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정비, 복원, 활용방안을 마련해 덕진산성의 진정성과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성기 기자 ask9990@

#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고급차 몰면 퇴거

차량가액 2468만원 제한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차량등록 기준을 강화해 부적합 차량 보유 시 퇴거조치 하겠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생업으로 불가피한 경우 2468만원 이하 차량만 등록할 수 있도록 가액 기준을 신설했다. 생업용 차량은 물품배송이나 전기·인테리어 같은 작업 도구를 싣는 데 쓰는 화물트럭·봉고로 차종을 제한했다. 이륜차는 사용 목적을 구체화해 배달·택배 등 생업 목적으로 125cc 이하 차량만 허용하기로 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생업과 자녀보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차량 미

소유·미이용이 원칙이다.

서울시는 강화한 기준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6곳 2397가구를 대상으로 등록차량을 조사한 결과 생업용 9대, 유아용 2대, 이륜차 6대를 포함, 사용목적에 부적합한 차량 17대를 적발했다. 이 중에는 그랜저·제네시스·카니발 등 중대형 차량도 포함됐다.

부적합 차량은 소득·자산 기준이 비교적 자유로운 민간임대주택에서 주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들 차량을 이달 말까지 처분하라고 안내했다. 계속 보유하면 퇴거 조치하고 임대사업자에게 협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강남·여의도로 확대

서울시는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지역)이 옛 한양도성 내부에 이어 강남과 여의도로 확대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 하위등급 차량 운행제한, 자전거와 개인교통수단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 확충, 녹색공간 조성, 자가용차 운행 억제,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추가 지정 고시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이뤄질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01 | 해질 / 17:30

11월 5일 (목) 음력 : 9월 20일

수도권 날씨 4 ~ 1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0/15, 동두천 0/15, 파주 -1/14, 가평 -2/14, 서울 4/15, 양평 -1/14, 인천 8/15, 수원 5/15, 용인 5/15, 평택 0/1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